

(6)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

■ 연구책임자

황운중 부연구위원

과제구분	기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책 <input type="checkbox"/>
구분 선정 사유	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산업의 노동생산성 및 산업구조 변화(자본집약도 등)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,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노동생산성 및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통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

■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

-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의 증가는 두 가지 상반된 경로를 통하여 국내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침.
 - 수출 증가는 추가적인 시장수요 확대를 의미하며 국내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(시장수요 확대효과),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노동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(생산성 효과).
 - 전통적으로, 시장수요 확대 효과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에 비해 크기 때문에 수출증가는 고용확대로 이어짐.
 - 산업의 노동생산성 또는 산업구조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출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음.
-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출산업의 구조가 '지식집약적' 또는 '자본집약적'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하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움.

- 특히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대로 인하여 기업은 오히려 고용감축 전략을 전개하기도 함.
- 실제로 한국의 경우 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, 제조업 전체 고용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.
-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s)의 심화와, 그에 따른 높은 중간재 해외의존도 역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축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.
 - 2000년대 이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중간재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이에 수출이 증가하여도 예전과 같은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움.
- 이렇듯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(수출 호조세와 고용회복의 높은 상관관계)가 축소되고 있는 주요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
 - 이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축소되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구조변화와 노동생산성의 역할을 강조
 - 산업의 기술력(new manufacturing technologies, IPR 등) 향상 및 자본 집약도 증가는 동일 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며, 결과적으로 수출 증대가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
 -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며 노동생산성 증가가 더딘 수출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제조업 수출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긍정적임.
- 더욱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심이 높는데, 수출 증가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

- 이에 수출이 증가하여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'고용 없는 수출(jobless exports)의 가능성(최소한 제조업의 경우)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
-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전·후방 서비스 산업(financial services, wholesaling-transportations, transportations, and storage)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의 구조변화(산업별 기술력 향상 및 자본집약도의 장기추이)와 함께 산업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수출과 고용 간 관계분석의 필요성
-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내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수출이 고용 확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작을 수 있음.
- Leichenko(2000)와 Greenaway et al.(1999)는 수출 증가가 오히려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함.

■ 연구목적

- 본 연구는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축소되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수출 및 내수산업의 구조변화(노동생산성 및 자본집약도 변화 등)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. 또한 제조업 수출 성장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
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 연구내용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
	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 연구내용
주요 선행연구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명: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rade on Employment in the United Kingdom - 연구자(연도): Greenaway, Hine, and Wright(1999) - 연구목적: 무역(수출/수입)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system GMM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이나믹 노동수요함수 (dynamic labor demand equation)를 이용한 모형 개발 - 계량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국의 제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의 증가는 오히려 국내 노동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함. - 이러한 결과는 무역자유화가 노동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(Leichenko, 2000)과 일맥상통함.
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명: Exports and Employment in China, Indonesia, Japan and Korea - 연구자(연도): Kozo Kiota (O2014), OCED Policy Paper - 연구목적: 수출이 동일 산업 및 타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WIOD (1995~2009)를 이용하여 추정함. -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국별/산업별로 추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과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모두 현저한 하락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-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, 제조업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 -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 산업 고용증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.
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명: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 시사점 - 연구자(연도): 최낙균&한진희(2012) - 연구목적: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량분석 - WIOD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증가세인 반면,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1996년 27%에서 2009년 14%로 감소하는 추이 - 이는 수출이 증가하여도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“고용 없는 성장”의 심화로 해석될 수 있음.
	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명: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- 연구자(연도): 서진교 & 이홍식 외(2008) - 연구목적: 무역자유화와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량분석 -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개방(관세율 하락)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 -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개방은 비숙련 노동의 상대적 고용을 더 촉진하는 반면,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개방은 숙련노동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킴. -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해 수입 중간재의 비중 변화가 한국의 고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

<p>본 연구</p>	<p>- 과제명: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</p>	<p>- 기초통계 조사 - 실증분석 - 학회 참석</p>	<p>-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분석 -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- 기업활동조사(firm-level)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교 분석 - 산업별 분석(산업연관표 및 실증분석)을 통해 수출 연계형 통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</p>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■ 주요 연구내용

- 수출과 고용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용창출 둔화의 원인으로 수출산업의 구조변화 및 노동생산성 강조
 - 수출의 고용탄력성 추이에 대한 시기별/산업별 비교
 - 주요 변수(수출, 고용, 노동생산성 또는 자본집약도)간 추이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하여 수출과 고용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노동생산성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
 -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산업의 노동생산성 또는 자본집약도 추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존재
 - 노동생산성의 빠른 증가는 수출 증가와 고용 감소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음.
 - 산업별 수출 또는 국내수요 비중으로 가중 평균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에 내재된 제조업 노동생산성 또는 자본집약도를 계산·비교
-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
 - 산업연관표(input-output table)를 이용하여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시기별/산업별로 추정·분석

- 산업별 노동생산성 또는 자본집약도에 대한 장기 추이 분석과 이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(System GMM 모형)
-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전·후방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 강조
- 산업별 수입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
- 기업 수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수출기업의 자원배분과 일자리 창출 간 관계 분석
- 통계청 제공 기업활동조사(2006~2012)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교 분석

□ 목차 (잠정)

제1장. 서론

- 가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- 나.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
- 다. 연구의 범위와 구성

제2장. 수출과 고용에 관한 기초통계 및 현황 분석

- 가.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및 자본집약도 추이
- 나. 주요 산업별 수출의 고용탄력성 추이
- 다. 주요 산업별 수출, 고용 및 노동생산성 간 추이

제3장.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

- 가.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추정
- 나.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

다. 수입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

제4장.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생산성 비교 분석

가.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분석

나.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고용창출 비교 분석

제5장. 결론 및 시사점

■ 연구추진방법

문헌조사, 기초통계분석 및 통계적 실증분석

학술 세미나 참석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및 간담회

세부 추진일정

○ 연구계획심의회: 2017년 3월

○ 연구중간심의회: 2017년 7월

○ 연구결과심의회: 2017년 11월

- 국외 출장

▪ 연구수행 중 미국 덴버 1회 계획

▪ 목적 및 필요성: 보고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

▪ 주요활동: 학술 세미나 참석 및 전문가 면담 실시

■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

정책수요처(정부, 기관 등)

○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

국정과제 관련성

국정 기초	추진전략		국정과제	
	코드	명	코드	명
2	4	맞춤형 고용·복지	56	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강화

기대효과

예상되는 정책 및 학술적 기여도

-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관계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신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연구기간

연구년차	(1/1년차)	연구기간	12 개월	시작일	2017.01.01.	종료일	2017.12.31.
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

■ 연구예산(천원)

구분	내용	금액
합계		53,000
1. 사업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비정규직 인건비 - 사업인턴 (1,500×1인)×1월=1,500 	1,500
2. 공공요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우편요금(DM 발송비 포함) 300×12월=3,600 ◦ 통신요금 50×12월=600 	4,200
3. 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모품 등 구입비 - 전산소모품,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등 100×12월=1,200 ◦ 인쇄 및 출판비 - 보고서 인쇄비 6×500부=3,000 - 자료 복사비 100×12월=1,200 ◦ 간행물구입비 100×12월=1,200 ◦ 기타 수용비 - 운송료, 신문구독료, 주차료 등 (100×12월)+50=1,250 	7,850
4.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장비임차료 - 전산장비(업무용 PC 및 복합기) 리스 100×12월=1,200 	1,200
5. 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내여비 (100×1인)×5회=500 ◦ 국외여비 - 미국(덴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항공료(Economy) (2,456×1인)×1회=2,460 ▪ 숙박비(나급지, 2호 가목) [(\$137×5박×1인)×1회]×1.15=790 ▪ 일·식비(나급지, 2호 가목) [(\$89×7일×1인)×1회]×1.15=720 ▪ 준비금(여행자보험료 등) (80×1인)×1회=80 ◦ 초청비 - 지방참석자 교통비(연구심의회 관련) (50×3인)×3회=450 ◦ 시내출장 50×12월=600 	5,600
6. 연구정보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자료구입비 - 문헌자료구입비 500×12월=6,000 - DB구입비(수출입기업 및 노동 관련 통계) 5,000 ◦ 특근매식비 (6×14회)×12월=1,000 	12,000
7. 전문가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참석 사례비 - 발표비(전문가초청간담회) (300×1인)×3회=900 - 토론비(전문가초청간담회) (100×3인)×3회=900 ◦ 연구 및 회의 관련 - 심의비(연구심의회) (250×3인)×3회=2,250 ◦ 기타 - 교정료 500×1회=500 - 검독료 (200×5인)×1회=1,000 	5,550
8. 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비 - 간담회의비 (30×5인)×3회]×12월=5,400 - 연구심의회비 (30×10인)×3회=900 ◦ 학술회의비 -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(30×20인)×3회=1,800 	8,100
9.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탁연구비 - 공동연구(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생산성 비교 분석) 7,000×1회=7,000 	7,000